

효성·금호, 정부와 신산업 30조 공동 투자

효성 친환경 신소재 개발, 금호 민자 고속도 건설 등 대상 해당 기업-산업은행 1대1 매칭 통해 자금 조성

효성, 금호, LG CNS 등 대기업들이 정부와 공동 투자에 본격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일부터 30조원 상당의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투자 수요를 발

굴하기 위해 각 기업과 산업은행이 1대1 매칭을 통해 자금을 조성, 집행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친환경 신소재 기술 개발을 위해 1조원 규모 생산설비 구축을 추진 중인 효성, 7000억원 상당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금호산업 그리고 올론도에

신재생 발전시설 건설사업을 준비 중인 LG CNS 등을 1차로 심사해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출 중심이던 금융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과 공동 투자를 통해 투자 위험(리스크)을 분담하고 수요에 따라 지원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투자금 지원은 산업은행과 1대1 매칭을 통해 이뤄지는데, 산은이 15조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총 30조원에 이르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원된 자금은 설비투자와 R&D(연구·개발), 사업구조조정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등을 통한 사전조사 결과 구체성이 확인된 약 5조원 규모 투자수요를 파악했다”며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52.68 (+3.42)
- ▲ 금리 (국고채 3년) 1.99% (+0.02)
- ▼ 코스닥 590.27 (-1.31)
- ▲ 환율 (USD) 1103.30원 (+9.80)



지난해 2월 문을 연 첨단2지구 광주문화신협 첨단지점 앞에서 임·직원들이 사옥 준공 및 개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문화신협 제공>

광주문화신협 자산 5000억 돌파

창립 21년만에 지역 최초 광주 북구에 6개 점포 운영 서민·소상공인 지원 주력

장기 경기불황 속에서도 탄탄한 재무구조를 기반 삼아 자산 규모를 5000억원대로 확대하고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서민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문화신협(이사장 조상만·이하 광주문화신협)은 창립 21년만에 지역 최초로 자산 5163억원(전국 2위)을 달성했으며, 건전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동조합 본연의 뜻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신협은 1993년 창립 이래 20년 연속 흑자경영을 일궈낸 알짜신협이다. 4043억의 대출규모에도 부실대출비율은 0.15%에 불과하며 연체비율도 상호금융 평균 연체율(3.6%) 보다 낮은 0.98%를 유지할 정도다. 여기에 자기자본 570억원에 내부적립금 146억원, 순자본 4.1%의 우수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현재 광주 북구지역에 문흥지구, 양산

지구, 운암동, 매곡동, 첨단2지구 등 총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4만8000여 명의 지역민과 거래하고 있다. 광주문화신협은 서민지원 대출에 초점을 맞춰왔다. 협동조합 정신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서민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서민지원 대출분야에 365억원을 취급(잔액 152억원)하며 3년 연속 전국 1위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2011년)과 재경부장관상(2012년), 금융위원장상(2014년)을 수상했다. 광주문화신협의 나눔경영 실천활동도 돋보인다. 2011년 ‘광주문화신협 복지 장학 재단’을 설립해 고등학교부터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재 키우기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대학 등에 대한 후원활동도 활발하다. 조상만 광주문화신협 이사장은 “다들 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신협 이념에 따라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대하고 존경받는 신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전, 규제완화로 기자재 공급자 진입장벽 완화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일부터 협력회사의 기자재 공급자 등록신청서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하고 등록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한을 단축하는 등 공급자 등록 제도를 개선,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기존엔 등록신청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인감

증서 등 3종의 서류는 조달청 등록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공장등록증 1종만 제출토록 개선했다. 또한, 등록신청서 검토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공급업체 등록 최종심사 기한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 소요기한을 최소화하여 신규 등록신청 업체의 신속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은 2일 오전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원스톱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광주지역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대표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금호고속-IBK펀드 '금호고속 인수' 총돌... 14명 부상

금호 "이익 내기 위한 무리수" IBK "임원실 정상 출근한 것"

금호고속 인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IBK투자증권-케이스트 사모펀드(PEF·이하 사모펀드)와 금호고속이 총돌, 직원과 용역 등 14명이 부상했다. 2일 금호고속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용역직원들과 IBK펀드 측이 모두 금호고속 본사를 빠져나가면서 지난 1일 시작된 금호고속 직원들과의 충돌이 일단락됐다. 사모펀드 측이 선임한 김대진·박봉섭 선임 금호고속 공동 대표이사과 용역직원 30여명은 지난 1일 낮 12시 40분께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9층에 있는 금호고속 임원실을 점거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점심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웠던 사이 사모펀드 측 용역들이 전기드릴로 잠금장치를 따고 임원실을 점거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측은 "대표이사 선임 후 처음으로 금호고속 임원실에 정상 출근한 것"이라며 "출근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로서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양측이 출근을 두고 충돌하면서 총 14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지난 1일 10명에 이어 2일 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호고속 직원 11명과 용역직원 3명 등 총 14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2년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모펀드 측에 금호고속을 매각(지분 100%)했다. 이후 IBK펀드 측은 금호아시아나 측이 선임한 기존 대표가 금호고속에 대한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11월12일 기존 대표를 해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였던 김철산 대표 및 일부 임원을 본인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임했다"며 "사모펀드 측은 '기업재무안정'이라는 설립 목적을 잊은 채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해 연이은 무리수를 뒤 금호고속 임직원 및 업계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설 앞두고 채소값 강세 일부 품목은 2배 올라

지난달 한파와 대설의 영향으로 시금치·상추·애호박·고추·피망 등 주요 채소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가지 주요 채소 도매가격은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해 40.6~143.5% 올랐다. 상추(4kg·상품)가 1년전의 2.4배(7291원→1만7753원)로 뛰었고, 열갈이 배추(4kg·상품)와 시금치(4kg·상품)도 각각 82.1%, 43.0% 올랐다. 잠나물(4kg·상품)·세발나물(4kg·상품)·돗나물(4kg·상품) 등 나물류 가격이 63~255% 급등한 상태다. 지난달 주요 산지인 충청·호남지역의 대설·냉해 등 때문에 생육이 부진한 열매 채소 값도 비싸다. 애호박(20개·상품)·붉은 고추(10kg·상품)·쭈기니 호박(10kg·상품)이 1년전보다 21.6%, 74.7%, 104%씩 올랐고, 붉은 피망(10kg·상품) 가격은 1주일전과 비교해도 무려 90.6%나 뛰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재영 LH사장 광주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재영(사진) 사장이 2일 경영정상화에 대한 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광주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명현)를 방문했다. 이 사장은 "작년에 LH 출범 후 최초로 금융부채 절대규모를 감축하고, 최대 판성과를 올리는 등 재무안정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LH로 성장해 100년 기업의 기틀을 다지는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 모집 인원 ▶ 30명
-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www.gochina.co.kr | 233-9582 (중)구오팔리

1636 결코 믿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